

# 관정 갤러리를 빛낸 작가들

학술정보서비스과 조진영, 송예진

## 1. 들어가는 말

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학문과 문화의 교감을 촉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부터 ‘중앙도서관 작은 전시회(이하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예술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전시회는 신진 작가 또는 학내 구성원이 관정관 1층 로비에 위치한 ‘관정 갤러리’에 미술, 사진, 예술 작품 등을 전시하는 문화 행사이다. 작은 전시회가 개최되는 관정 갤러리는 서울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방문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 있어,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적 이점을 지닌다.

지난 8년간 총 21회(특별전 2회 제외)의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 수많은 작가가 참여했다. 그림책 작가,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인 학내 구성원들도 관정 갤러리를 빛내주었다. 외부 기관과의 협업 전시 또한 여러 차례 개최되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관정 갤러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공간적 이점이 전시 장소 선정에 있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작은 전시회를 통해 관정 갤러리를 빛내주었던 작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전시를 작가의 활동 분야별로 구분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2024년 개최를 목표로 기획 중인 작은 전시회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풍부한 전시 콘텐츠 발굴을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고가 그간 개최되었던 작은 전시회를 총망라하고, 관정 갤러리를 빛낸 다음 작가를 맞이하는 글이 되길 바란다.

## 2. 중앙도서관 작은 전시회 개최 현황

표 1 작은 전시회 개최 현황(2017. 9. ~ 2024. 2.)

회차	제목	기간	작가/주관기관	전시 내용
1	The Tale of Paper Forest	2017. 9. 13. ~ 2017. 10. 30.	이지선	창작미술
2	숲·쉬다: 동물드로잉과 그림책 展	2017. 11. 14. ~ 2018. 1. 14.	이지은	창작미술
3	아트 오브젝트로서의 그림책 (Picture book as an art object)	2018. 3. 1. ~ 2018. 4. 30.	김지민	3D 오브젝트 전시

회차	제목	기간	작가/주관기관	전시 내용
4	풍경이 들려주는 노래	2018. 6. 1. ~ 2018. 7. 31.	김덕기	창작미술
5	머느라기를 받았습니까?	2018. 9. 1. ~ 2018. 10. 31.	수신지 (본명: 신수지)	만화(카툰에세이)
6	한복 입은 서양동화	2018. 12. 1. ~ 2019. 1. 31.	우나영 (필명: 흑요석)	창작미술
7	구멍가게의 사계	2019. 3. 1. ~ 2019. 4. 30.	이미경	팬화
8	Let's Elope!	2019. 5. 13. ~ 2019. 7. 31.	요이한(Yoy Han)	창작미술
9	부리극장(Henge on the Roots)	2019. 8. 14. ~ 2019. 10. 11.	김종규·이혜진·정성윤	창작미술
10	빛물연구센터 하늘물 전시회	2019. 12. 2. ~ 2019. 2. 29.	빛물연구센터	주제 기획전시
11	Spring, Budding, Growing	2020. 3. 16. ~ 2020. 5. 29.	신수진	서양화
12	지도유람: 화원이 거닐던 우리 강산, 지도가 되다	2020. 9. 1. ~ 2020. 10. 30.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동양화
13	서울대저널 자치언론의 꿈	2021. 3. 15. ~ 2021. 6. 30.	서울대저널	학생활동
14	장자, 기대어 노닐다	2021. 9. 1. ~ 2021. 10. 30.	유한이, 박혜신	동양화
15	무無턱대고 평등한 지도	2022. 2. 7. ~ 2022. 4. 30.	서배공(서울대학교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학생활동
16	공간과 주체	2022. 5. 25. ~ 2022. 8. 23.	미동(서울대학교 학생 순수미술 동아리)	학생활동
17	시간의 시(詩)	2022. 9. 20. ~ 2022. 11. 13.	김태훈, 남민오, 아하콜렉티브	미디어아트
18	닥터베르의 도전은 계속된다	2023. 3. 20. ~ 2023. 6. 8.	이대양 (필명: 닥터베르)	웹툰
19	너를 위한 작은 위무	2023. 7. 24. ~ 2023. 9. 8.	미동(서울대학교 학생 순수미술 동아리)	학생활동
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공동기획전시 〈문화예술교육으로의 향해〉	2023. 11. 6. ~ 2023. 12. 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미디어아트
21	혼자 있는 시간 : 자아와 고독	2024. 1. 8. ~ 2024. 2. 12.	미동(서울대학교 학생 순수미술 동아리)	학생활동
특별전	기부자 초청 특별전 〈부모님 사랑 기린〉	2018. 5. 8. ~ 2018. 5. 25.	임공희	서예
특별전	아름 임공희 展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특별 초청전: Dialogue: Book & Art	2018. 8. 10. ~ 2018. 8. 28.	고낙범 외 다수	원화

### 3. 전시 소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전시회는 개최 횟수가 많고 참여 작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작가의 작품 성격, 그리고 주최 기관을 기준으로 전시 내용을 ‘그림책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학생 동아리’, ‘미술 작품 기증 작가’, ‘협업 기관 전시’, ‘웹툰 작가’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소개 내용은 <작가 소개>, <전시 배너 및 포스터>, <전시 후기> 등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작은 전시회 컬렉션 페이지<sup>1)</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 그림책 작가

##### 1) 이지선 작가 (제1회)

이지선 작가는 브라운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림책 작가이다. 작가가 참여한 제1회(2017) 작은 전시회 <The Tale of Paper Forest>는 일상 기록을 통해 삶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사물을 다른 시선으로 관찰하여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 기획된 전시이다. 매 순간의 풍경과 사물들, 고정된 흔적들을 일상성의 탐구로 끌어들이므로써 삶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작품들 속에 담겨 있다(이지선, 2017).



그림 1 제1회 작은 전시회 리플릿 겉지 및 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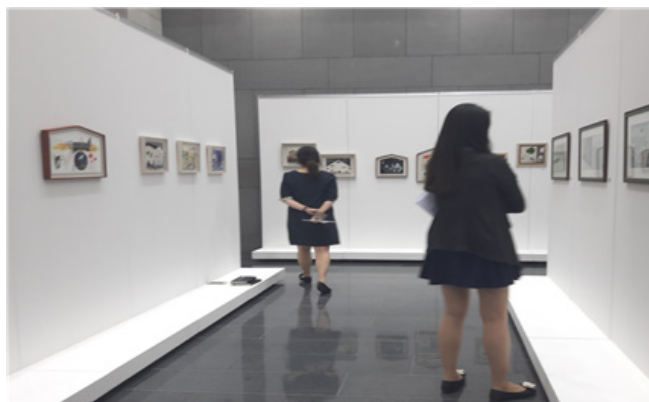


그림 2 제1회 작은 전시회 전시장 전경

1) <https://lib.snu.ac.kr/collection/small-gallery/>

**표 2 제1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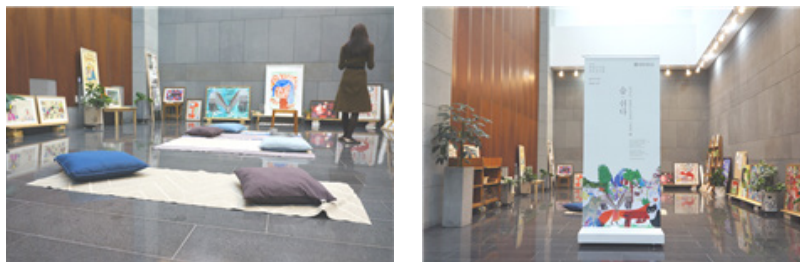
No.	주요 후기(총 23건)
1	익숙하고 너무나도 흔하다고 여겨지는 사물들을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세계를 더욱 이해하려 한다는 작가님 말이 인상 깊습니다. 재미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한편의 오페라를 감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새와 소녀와 숲이 화폭에 함께 담겨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마치 동화를 읽는 듯한 감정을 자아냈습니다.
3	일상적인 장소인 도서관에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어서 나의 일상도 좀 더 특별해진 것 같았다. 그림과 작품의 소재 또한 일상에서 봤던 소재였고,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2) 이지은 작가 (제2회)**

이지은 작가는 그림책 작가이자 인형 작가이다. 작가는 제2회(2017) 작은 전시회 <숲·쉬다: 동물드로잉과 그림책 展>을 통해 ‘관람객들이 낯설면서도 친숙한 동물들과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8)는 뜻을 전하며 본 전시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바닥과 가까운 곳에 동물드로잉 작품을 설치하고 관정 갤러리 중앙에 카펫과 쿠션을 비치함으로써, 전시 관람객들이 앉거나 누운 자세로 작품 속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3 제2회 작은 전시회 포스터 및 리플릿**



**그림 4 제2회 작은 전시회 전시장 전경**

표 3 제2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114건)
1	첫인상이 토드 셀비 작가의 <즐거운 나의 집> 전시와 비슷해서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토드 셀비 작가와는 또 다른 이지은 작가만의 아기자기한 상상력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종이 아빠 관련 전시 매우 재밌고 참신했어요!
2	익살스러우면서 대상의 특징이 단번에 느껴지는,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는 동물 그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종이 아빠'라는 독특한 설정도 참신했고요. 관정관 1층 자투리 공간의 아늑한 재탄생이네요.
3	『종이아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영똥한 상상력을 재밌게 묘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의 스타일과 색감이 너무 예뻐요. 마치 직물(tapestry)을 보는 것 같아요. 좋은 전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어주세요!

### 3) 김지민 작가 (제3회)

김지민 작가는 그림책 작가로, 2016년에 영국 AOI 월드 일러스트레이션 어워드 신인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그다음 해인 2017년에는 '나미 국제 그림책 콩쿠르'에서 퍼플 아일랜드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에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에서 황금 사과상을 수상하였다. 김지민 작가가 참여한 제3회(2018) 작은 전시회 <아트 오브젝트로서의 그림책(Picture book as an art object)>은 작가의 역대 수상작으로 구성된 전시이다. 책이 가진 물성, 즉 세워 놓을 수도, 접을 수도, 펼칠 수도 있는 책만이 가진 특징을 극대화함으로써 그림책에 대한 작가의 예술관을 투영하였다. 작가는 그림책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이 있다고 말하며, “오브젝트 그 자체로 아름다운 책을 소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독자층이 분명히 있고, (중략) 앞으로도 어린이 책과 아티스트북 작업을 병행하며 내용과 형식이 아름답게 조화된 그림책을 계속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GalleryMEME, 2017).



그림 5 제3회 작은 전시회 포스터 및 리플릿



그림 6 제3회 작은 전시회 전시장 전경

표 4 제3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102건)
1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고, 그 대답이 쉽지 않다는 것도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팝업북이라는 매체로써 '나'의 '나' 아님, 혹은 '나'의 '나들'됨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이러한 주제들을 함께 떠올리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네요.
2	전시회를 보며 그림책의 매력을 알고 갑니다. 『하이드와 나』 속에서 각 그림을 한 장 속에 그리지 않고 다른 페이지와 겹치도록 한 형식이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 책에서도 입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3	김지민 작가님의 그림이 오묘조밀하고 세밀하고... 작은 종이 위에 알차게 그려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시 공간이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그림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나. 일러스트레이터

### 1) 우나영 작가(제6회)

우나영 작가는 ‘흑요석’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이다. ‘한복 입은 엘리스’를 비롯한 「한복 입은 서양동화」 시리즈로 세계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다.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린 개성 있는 작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미권과 유럽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우나영 작가는 제6회(2018) 작은 전시회 <한복 입은 서양동화>에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할 법한 캐릭터에 한복과 전통민화의 모티브를 더하여 디지털 기법으로 그려낸 일러스트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는 “한복을 알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한복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 또한 작가로서 이 프로젝트의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며(우나영, 2018), 본 전시를 통해 전통의 재해석을 시도했음을 밝혔다. 주로 SNS에서 활동하던 작가의 작품을 오프라인으로 전시하여, 작가의 많은 팬들이 관정 갤러리를 방문하였다. 이에, 무인 판매 기념 엽서 6종 총 3,595장이 판매되면서 365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올렸다. 작가는 기념 엽서 판매 수익금을 ‘나눔의 집’에 전액 기부하였다.



그림 7 제6회 작은 전시회 포스터 및 리플릿



그림 8 제6회 작은 전시회 작품 설명회 모습 및 전시장 전경

표 5 제6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350건)
1	개인적으로 민화·사군자 같은 한국화를 좋아하고 종종 작품도 그리는데, 동화(서양)와 한복(동양, 한국)의 조화가 매우 신선하고 색감이 예뻐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작품 활동 많이 해주세요~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2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하던 서양 동화들에 한복을 입혀도, 한국적인 느낌으로 재구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각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지만 친숙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전시 감사합니다.
3	전통적 문화와 동화가 올리니 신기하면서도 한국 버전 동화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이미경 작가 (제7회)

이미경 작가는 1994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여러 색채의 아크릴 잉크로 정교하게 정물화와 풍경화를 그려온 펜화 작가이다. 1997년부터 20여 년 동안 전국 구석구석에 자리한 구멍가게들을 애뜻하고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시켜 왔다. 이미경 작가가 참여한 제7회(2019) 작은 전시회 <구멍가게의 사계>는 오랜 시간의 흔적을 지닌 구멍가게를 펜화로 그

려낸 작가의 작품들로 꾸며졌다. 작가는 사라져가는 구멍가게 그림을 통해 옛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작가의 그림 속 구멍가게는 세월과 시간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드러냄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옛 골목과 관련된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본 전시에는 「산척에서-봄」, 「비봉 수퍼」, 「밤나무골가게」 등 계절별 아름다움을 뽐내는 총 6점의 작가 대표 작품이 전시되었다(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9).



**그림 9 제7회 작은 전시회 리플릿**

**표 6 제7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48건)
1	세밀하고 날카로운 펜으로 따뜻한 그림을 그려내서 인상 깊습니다. 날카로운 화구의 느낌이 생동감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회가 있어 좋습니다.
2	마음이 따스해지고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어렸을 적 시골 할머니 집에서의 따뜻한 추억이 떠올라서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가슴 한편 잃어버렸던 중요한 텅 빈 조각을 채우고 가는 느낌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동양화 참 좋네요….
3	그림이 사랑과 정성이 가득하여 보는 내내 마음 따뜻하고 숙연했습니다. 사람살이에 깃든 시간의 흔적이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나무와 풀들로도 잘 어울리게 피어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작은 전시회'라는 기획이 참 멋집니다. 중앙도서관에 숨통을 트여주는 공간 같아요. 감사합니다.

### 3) 요이한 작가 (제8회)

요이한 작가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여 여행의 기억, 오래된 사진, 노래 가사 등에서 떠오르는 단편적 이미지와 감정을 재료로 삼아, 다양한 분야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요이한 작가가 참여한 제8회(2019) 작은 전시회 <Let's Elope!>는 뜨거운 열대지방을 모티브로, 춤추는 듯 일렁거리는 사람들을 주요 소재로 한 작가의 작품들로 꾸며졌다. 작가는 'Let's Elope!'라는 구호를 작업 초창기부터 마음속에 새겨 두었으며, 이를 통해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을 바라고, 함께 꿈꾸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요이한, 2019). 「Drunken Night」 등



작품 9점이 전시되었으며, 일러스트 그림을 활용하여 디자인한 도서 9점도 함께 선보였다.



그림 10 제8회 작은 전시회 전시장 전경 및 전시 도서

표 7 제8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146건)
1	관정 갤러리에서 열린 바로 직전 전시도 관람했는데 저번 전시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요이한 작가 전시는 다채롭고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가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여 그림을 다시 보니 강렬한 색채들이 꿈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전시 감사합니다.
2	관정관에서 전시할 때마다 몇 번씩 구경 오는데, 이번 전시회는 뭔가 특히 더 와 닿았어요. 시험기간의 힘들 속에서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색감과 역동성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종강하고 갈 발리 여행을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3	관정을 자주 방문하다가 문득 전시회를 발견하고 보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아름다운 색채의 그림들을 눈에 한가득 담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품을 보고 느낀 점과 작품 해설이 일치하는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는 것 또한 재미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Night Mute S#1 S#2」 작품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 다. 학생 동아리 (제16, 19, 21회)

미동은 서울대학교 학생 순수미술 동아리로, 2022년부터 총 3회의 작은 전시회를 매년 개최했다. 2022년에 개최된 제16회 작은 전시회 <공간과 주체>는 공간과 주체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담은 전시이다. 미동은 공간이 개체에 점유됨으로써 의미를 가지기도, 혹은 그 반대로 자신이 점유하는 공간을 통해 주체가 정의되기도 한다고 말하며, 작품 속에 공간과 주체에 관한 사유를 담았다(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2).

2023년에는 제19회 작은 전시회 <너를 위한 짧은 위무>를 개최했다. 이 전시는 빠르고 거친 삶의 흐름 속에서 외면당하기 쉬운 작은 가치들에 대한 재조명의 시간을 담았다. 미동은 관심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작품에 담아, 그 순간에 대한 관객의 재인식 경험을 통해 존재에 대해 보다 온전한 인식을 가능케 하고자 본 전시를 기획했다(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3).

2024년에는 제21회 작은 전시회 <혼자 있는 시간: 자아와 고독>을 개최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독은 더 이상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미동은 이 점에 주목하여 고독사, 무연사회, 사회적 고립 등 고독이 초래하는 현대사회의 여러

부정적 영향 사이에서 우리가 고독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을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미동, 2024).



그림 11 제16, 19, 21회 작은 전시회 리플릿



그림 12 제16, 19, 21회 작은 전시회 전시장 전경

표 8 제16, 19, 21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제16회: 총 56건, 제19회: 총 47건, 제21회: 총 56건)
1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 또는 주체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주체로서 어떤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제16회).
2	중앙도서관 작은 전시회는 늘 관심 있게 봐왔는데, 이번 전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삶은 그 자체가 수단이자 목적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와닿는 요즘입니다. 야망을 좇고 싶은 한편으로는 그저 적당하게, 나태하게 살고 싶기도 하네요. 무기력하고 우울한 일상에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19회).
3	아이와 함께 탐방 중에 방문했습니다. 자아와 고독에 대한 작가들의 표현이 다양하네요. 밝고 긍정적인 고독, 분리되어 쓸쓸한 고독. 여러 색채의 고독을 느끼고 갑니다(제21회).

## 라. 미술작품 기증 작가

중앙도서관 본관 및 관정관에는 국내 주요 작가들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신수진 작가, 김덕기 작가를 작은 전시회에 초청하여 관정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 1) 신수진 작가 (제11회)

신수진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동문이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대 미술 작가이다. 작가는 17회의 개인전 및 수많은 그룹전과 초대전에 참가하였고 국내외의 여러 미술관과 기업에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과의 인연은 2015년에 중앙도서관 관정관을 개관하면서였다. 당시 관정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작가로 선정되어, 도서관 전체 공간에 작품 35점을 전시하였다. 현재는 기증 작품, 장기대여 작품을 포함하여 13점의 작품이 관정관에 전시 중이다.

〈Spring, Budding, Growing〉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신수진 작가 초청 전시는 관정관 전시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에 제11회 작은 전시회로 기획되었다. 작가는 전시 초대말을 통해 “이번 전시회는 ‘봄’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파스텔 색조의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작품들은 작품 간의, 또 각각의 작품 내에서 작은 요소들이 고유의 다양한 색을 띠고 집적되었을 때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 내는 봄의 빛깔과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봄의 기운을 담은 전시를 통해, 따뜻한 희망과 성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히었다.



그림 13 제11회 작은 전시회 인스타그램 게시 전시 초대 카드

**표 9 제11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53건)
1	반복적인 패턴이 주는 잔잔함과 봄의 따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주어 고요한 도서관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2	생동하는 봄이 색과 선, 작은 점을 통해 따스한 봄빛처럼 다가옵니다! 전시가 계속 쪽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3	코로나 때문에 즐기지 못했던 봄의 분위기를 신수진 작가님의 갤러리에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봄의 색감을 온몸에 담는 느낌이었고, 푸른색과 같은 색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던 감상이었습니다. 어릴 때 서울대 미대에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저로 하여금 어릴 적의 꿈을 다시 회상해 보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2) 김덕기 작가 (제4회)**

김덕기 작가 역시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였다. 김덕기 작가의 작품은 춤추는 점화로 밝고 경쾌한 색감과 따뜻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도서관에 기증한 작품인 「가족-함께하는 시간」 역시 점화 기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가족의 사계를 따뜻한 감성으로 그린 작품이다. 해당 작품은 현재 관정관 6층 정보검색실 내에 전시되어 있다.

2018년에 개최한 김덕기 작가 초청 전시인 제4회 작은 전시회는 <화가 김덕기 대표 작품 특별전, 풍경이 들려주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가족-함께하는 시간», 「한 지붕 아래», 「원더풀 독도», 「양떼구름이 보이는 풍경」 등 화가 김덕기의 대표 작품과 소품들이 전시되었다.



**그림 14 제4회 작은 전시회 리플릿**

**표 10 제4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113건)
1	작은 점으로 찍혀있는 색 하나하나 저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점,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진 전시회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은 전시회 행사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손길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전시를 느끼고 가네요. 감사드려요:)
2	김덕기 작가님의 작은 전시회를 보고 나니 덕수궁에서 보고온 알록달록한 은행, 단풍나무가 생각나요 기가 막히네요. 크~

3

더운 여름에 잠시나마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오래간만에 모교에 들러 업그레이드된 도서관 환경에 기쁜 마음입니다.



그림 15 제4회 작은 전시회 전시 작품(김덕기 작 「가족-함께하는 시간」(2015))

## 마. 웹툰 작가

### 1) 수신지 작가 (제5회)

수신지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생으로 「3그램」, 「스트리트페인터」, 「며느라기」 등을 집필한 일러스트레이터 겸 만화가이다. 수신지 작가의 전시회는 <수신지 작가 초대전: 며느라기를 받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작가는 현실적인 소재와 이야기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사는 만화를 집필함으로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한 '2017 오늘의 우리 만화' 수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한국만화가협회장상을 함께 수상하기도 하였다.

작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시 개막식이 열렸던 2018년 9월 11일에는 작가의 유명 웹툰 작품인 『며느라기』를 애니메이션화한 필름을 최초로 공개하여 전시 행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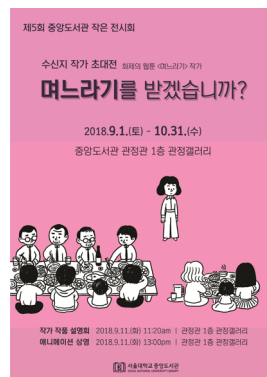


그림 16 제5회 작은 전시회 전시 포스터

당시 전시 장소에 롤링페이퍼 형식의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참여 공간이 마련되었으나, <며느라기를 받겠습니까>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페미니즘과 맞물려 작성자 간 댓글 형식으로 갈등이 표현되기도 하여 전시 중반부터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롤링페이퍼 후기 외에 별도로 남겨진 주요 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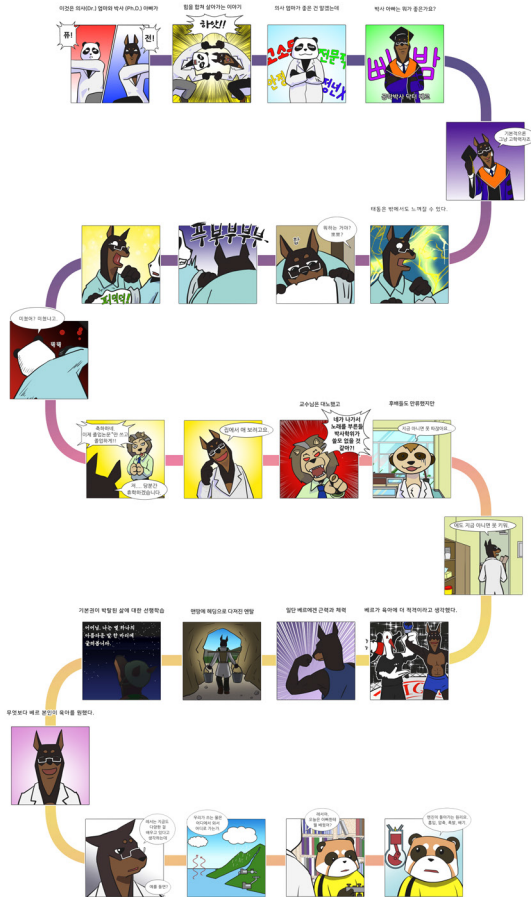
**표 11 제5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32건)
1	이번 전시회처럼 사회에 만연하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전시회, 현재 사회구조와 분위기 안의 불평등함을 드러내는 전시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2	며느라기 전시 좋네요. 앞으로도 다양하게 전시 부탁드립니다~
3	잘 봤어요. 평소 좋아하던 콘텐츠인데 전시회로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자주자주 이런 소소한 예술행사, 상시 전시 좋으니 많이 열어 주세요.

## 2) 이대양 작가 (제1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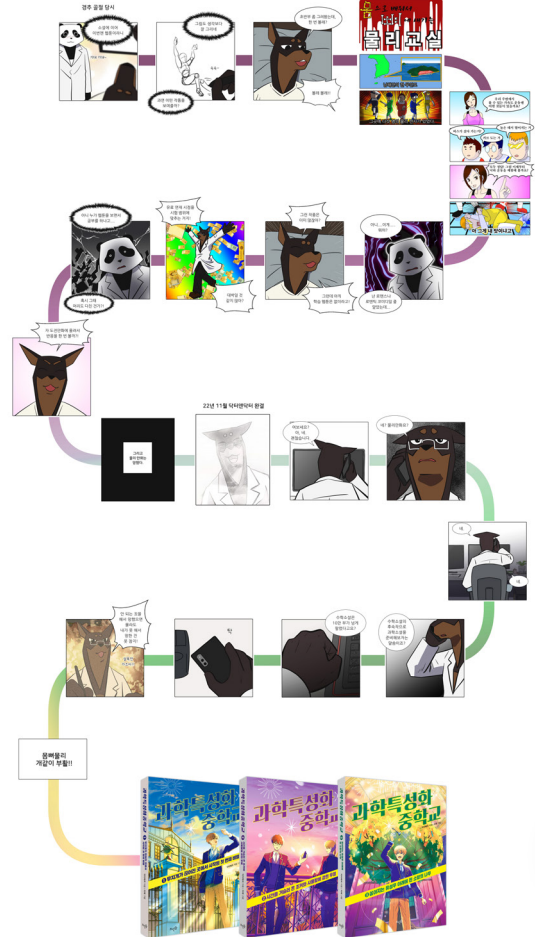
이대양 작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에너지자원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지만, 박사 취득 이후 웹툰 작가로 전향하였다. 제18회(2023) 작은 전시회는 <닥터베르의 도전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이대양 작가의 웹툰 입문기, 웹툰 캐릭터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여 포스터 전시를 개최하였다. ‘닥터베르’는 이대양 작가의 필명이자 본인의 웹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의 주인공 이름이다. 또한 같은 제목으로 관정관 양두석홀에서 연계 행사인 북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북 콘서트 후에 진행된 작가 사인회에서는 참여 인원이 많아 1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 공학박사 아빠



<닥터앤닥터 육아일기>는 산부인과 의사 엄마가 낳고, 공학박사 아빠가 아이를 키운다는, 얼핏 듣기엔 썩 괜찮아 보이는 조합이 현실의 벽 앞에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공학박사까지 공부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권이런 '아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라는 질문에 공감하고, 대부분의 경우 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하늘은 왜 파랗고,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자동차는 어떻게 달리고, 컴퓨터란 무엇인지..... 아이들의 세상은 호기심과 질문으로 가득하다. 22년 여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물었다. "아빠,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의 차이는 뭐예요?" 앞으로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

# 실패와 경험



나의 첫 웹툰은 경추골절 사고를 겪었던 2017년도에 그린 '몸으로 배워서 뼈에 새기는 물리교실' 출해서 '몸뻍물리'라고 불렀던 작품이다. 수백억 원 규모의 학습만화 시장이 있는데 학습웹툰이 없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과, 과학 지식에 대한 자신감으로 준비했던 만화였다. 그 작품은 부족한 그림실력과, 지식-재미 밸런스의 조절 실패, 학습 웹툰 독자 층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참하게 망했다. 오죽하면 댓글 숫자가 0 개인 에피소드마저 있었다. 결국 이 작품은 4개월의 연재 기간 동안 베스트드래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 연재를 중단하면서 나의 유일한 중도 포기 작품으로 남았다. <닥터앤닥터 육아일기>를 완결한 22년 11월, <뜨인들>출판에서 연락을 받았다. 누적 10만 부를 돌파한 <수학특성화 중학교> 시리즈의 과학 버전 후속작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몸뻍 물리>의 실패에서 얻은 모든 교훈을 <과학특성화 중학교>에 담았고, 22년 청소년 베스트 소설이 되어 '올해의 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교훈이 있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다.

그림 17 제18회 작은 전시회 전시 포스터 중 일부 이미지

작은 전시회 역시 호응이 높아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학내외 관람객이 총 214건의 전시 후기를 남겨주었다.

**표 12 제18회 작은 전시회 주요 후기**

No.	주요 후기(총 214건)
1	『닥터앤닥터 육아일기』라는 웹툰을 이름만 알고 보려고 담아 두었다 묵힌 작품이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작가분이 동문 선배라는 걸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살배기 레서가 하던 “왜요?”, 닥터베르가 투병을 받아들이기 전 스스로에게 묻던 “왜?”, 그리고 수많은 학자의 길을 걷는 이들이 세상에 묻는 질문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 질문하기에 익숙해져 우리 앞에 놓이는 시련들에게도 함당함을 요구하고 싶어지나 봅니다.
2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그리고 소중한 누군가가 암에 걸렸던 사람으로서 몰입할 수 있었던 전시. 닥터베르는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깊은 고찰이 담긴 방식으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게 한다.
3	지금껏 학교를 다니며 많은 전시들을 보왔고 그 중 인상적이었던 전시들이 꽤 있지만, 검색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전시는 처음인 것 같다. 앞으로의 전시에서도 졸업생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 바. 타 기관 협업 전시

### 1) 서울대학교 예술주간(ArtSpace@SNU) (제9, 12, 14, 17회)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ArtSpace@SNU(이하 ‘예술주간’)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과와 각 단과대, 동아리가 연합해 참여하는 행사로, 교내 예술 문화환경 조성과 서울대 구성원이 가진 풍부한 예술적 역량을 즐겁게 공유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사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9회의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그중 관정 갤러리에서는 4회의 협업 행사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예술주간 협업 전시는 2019년에 <뿌리극장, Henge on the Roots>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종규, 이혜진, 정성운 작가 3명이 참여하였다. 전시 내용은 ‘학문과 예술의 영감’을 주제로 하여 작가들의 예술세계와 독서 경험을 서로 교차하는 프로젝트 전시로 진행되었다. 작가들은 질 들뢰즈, 마르셀 프루스트, 스테판 츠바이크의 소설 또는 수필 가운데 자신의 예술 활동에 깊은 영향을 주었거나 같은 작품세계와 철학을 공유하는 대표작을 선정하여 함께 전시하였다. 전시장에서는 관객이 전시 중인 책에 밑줄을 직접 그어보는 관객 참여 활동 ‘내가 좋아하는 문장에 밑줄 긋기’를 상시 진행하기도 하였다.

**표 13 제9회 작은 전시회 전시 도서**

No.	저자명	도서명	저술 연도
1	질 들뢰즈(Deleuze, Gilles)	『위로하는 정신 - 체념과 물러섬의 대가 몽테뉴』	1960
2	마르셀 프루스트(Proust, Marcel)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913~1927
3	스테판 츠바이크(Zweig, Stefan)	『감각의 논리』	1980





그림 18 제9회 작은 전시회 전시 포스터 및 전시 작품(정성윤 작 「RooftopA」(2018))

표 14 제9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34건)
1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걸맞은 컨셉트로 이루어진 좋은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외부 작가가 아니라 교내에서 대학생생 겸 활동 중인 작가분들의 작품이어서 더 뜻깊었네요!
2	이번 전시회에서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작품은 김종규 작가님의 '빛으로부터-나무형상'입니다. 제가 흰색과 검정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서관에 들어가다가 너무 예뻐서 발길을 돌려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흰 비단에 수묵으로 그렸는데 그림이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고 흑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돈만 있다면 그림을 구매하여 칙칙한 제 방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걸어두고 싶습니다. 그림 너무 멋졌습니다!
3	도서관 전시에 맞게 독서와 예술의 만남이라니 정말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품 수가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도서관 전시에서만 가능한 전시 같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술주간 협업 전시는 <지도유람 : 화원이 거닐던 우리 강산, 지도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12회(2020) 작은 전시회이다. 「도성도」와 「1872년 군현지도」 중 「통영지도」를 비롯하여 회화성이 뛰어난 6점을 선정하여, 총 7점의 회화식 지도 모사 작품을 전시하였다.



그림 19 제12회 작은 전시회 전시장 전경

세 번째 예술주간 협업 전시는 <장자(莊子), 기대어 노닐다>라는 제목으로 제14회(2021) 작은 전시회로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장자의 철학을 회화적,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활발하게 작품 활동 중인 유한이, 박혜신 2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미로」(유한이), 「상구원질도(象求原質圖)」(박혜신) 등 작품 10점을 전시하였다. 유한이 작가, 박혜신 작가 모두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였다.



그림 20 제14회 작은 전시회 전시 작품 이미지  
(좌: 유한이 작 「미로」(2013), 우: 박혜신 작 「상구원질도(象求原質圖) 3」(2011))

네 번째 예술주간 협업 전시는 <시간의 시>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17회(2022) 작은 전시회였다. <시간의 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박제성 교수가 기획한 미디어 아트 전시로, 박제성 교수는 전시 서문에서 “미디어와 우리, 기술과 우리는 상호 소통하면서 서로를 만들어간다. 이에 대한 통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디어 아트 작품을 통해 미래를 향한 시선과 태도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전시를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미디어 아트 전시는 관정 갤러리에서 처음 시도된 전시였는데, 빔프로젝터, 모니터 등 기기 대여 비용이라는 변수로 인해 전시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축소하여 2개월로 진행하였다. 미디어 아트 전시 특성상 암전된 공간이 필요하였으나, 관정 갤러리 위쪽의 채광으로 인해 완전한 암전을 만들 수가 없어 조명을 최대한 끄고 어두운 상태에서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제약은 미디어 아트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없는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김태훈(조소과), 남민오(디자인학과), 아하콜렉티브(동양화과)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참여 작품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5 제17회 작은 전시회 전시 작품 목록**

작가명	작품명	제작 연도	재료 및 기법	분량 및 규격
김태훈	기억탐험	2022	단채널 비디오	3분 10초
남민오	선택받은 세계	2022	단채널 비디오	15분
남민오	Fragmentized deja vu 연작, 무제	2022	파인아트지에 지클리 프린트	1000×1000mm
남민오	세계 배회	2022	단채널 비디오	15분
아하콜렉티브	스패닝 Spanning	2022	3채널 비디오, 디지털 컬러 인쇄 설치	1분 30초



**그림 21 제17회 작은 전시회 전시장 전경**

**표 16 제17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34건)
1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학교에서 관람할 수 있다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있다면 공간의 제약이 있기는 하겠으나 좀 더 다양한 작품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2	스크린을 통해 한 편의 예술작품을 만든 것 같아 신기하고 멋졌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표현한 듯하며 놀라우면서도 새로웠습니다.
3	지나다니며 저건 뭘까 하다가 오늘 처음 자세히 봤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생활에 녹아 있는 미술작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하늘물 전시회 (제10회)**

하늘물 전시회는 2003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와 중앙도서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작은 전시회뿐 아니라 당시 빗물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던 한무영 교수(건설환경경공학부 교수) 강연회, 관련 도서전과 연계하여 개최한 행사였다.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는 UN총회에서 제정한 SDG 6(Sustainable Development Goal 6번째) ‘물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 교내 연구소이다. 제10회(2019) 작은 전시회는 빗물연구센터의 빗물 이용 활동과 빗물 식수화 사업 내용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내용의 포스터 전시가 이루어졌다.

**3) 서울대저널 (제13회)**

제13회(2021) 작은 전시회는 서울대학교의 독립자치언론이자 유일한 시사종합지인 『서울대저널』의 노력과 성과 조망을 위해 <서울대저널이 전하는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다. 1995년 창간 이래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서울대저널』은 독립된 운영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시각에서 학내외의 교육, 정치, 노동, 환경, 소수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며 대학 사회의 진보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교내 언론매체이다. 전시 내용은 서울대저널 소개, 역사, 주요 기사 등을 소개하는 포스터로 이루어졌다.



**그림 22 『서울대저널』 표지 이미지**

#### 4) 서배공 (제15회)

‘서배공’은 서울대학교 내 학생 단체인 ‘서울대학교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의 약자이다. 제15회(2022) 작은 전시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공동 주최로 <무無턱대고 평등한지도: 서배공 샐로잡을지도>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전시 제목 <무無턱대고 평등한 지도>는 휠체어를 탄 손님도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게 앞에 턱이 없거나 경사로를 설치해 둔 가게를 모아 제작한 지도를 의미한다. 2021년에 결성된 ‘서배공’은 서울대학교 인근 샐로수길 상권 800여 곳의 배리어프리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리어프리 맵 ‘샐로잡을지도’를 제작했다. 제15회 작은 전시회는 ‘샐로잡을지도’를 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제작 동기, 제작 과정, 완성된 ‘샐로잡을지도’, ‘서배공’의 비전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포스터로 구성되었다. 또한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이 서배공의 활동을 생생하게 담아 만든 영상 자료도 함께 상영하였다. 당시 전시는 한겨레,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서 상세히 취재하여 보도하여, ‘배리어프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표 17 제15회 작은 전시회 전시 후기

No.	주요 후기(총 43건)
1	관정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배리어프리’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고 접근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 귀엽고 아기자기한 곳즈도 있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2	평소 미술과 관련된 전시만 보다가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전시도 보여주어서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서울대생들이 받는 여러 혜택의 특전을, 이렇게 사회로 다시 재 나눔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전시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 기쁩니다.
3	관정에서 공부하다 지칠 때나 잠시 관정 로비에 있게 될 때 그 시간을 전시회를 통해 보내며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 역시 평소 생각해 볼 기회가 없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 4. 맺음말

### 가. 관정 갤러리가 빛나기까지

앞서 소개한 역대 작은 전시회를 보면 알 수 있듯, 관정 갤러리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그림책 작가,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같이 예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에게 전시 참여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작은 전시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학내 구성원이 전시 참여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경우도 많다. 작은 전시회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가진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이 가진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 기획 단계는 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전시를 구상하는 과정으로, 전시 준비 과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전시장 모습을 관정 갤러리에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제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전시 설치 단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늘 잇따른다. 기획 단계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인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더러 발생한다. 일례로, 도서관 야외 공사 일자가 갑작스럽게 변동되어 전시 설치 일정과 겹치게 되면서, 전시 물품을 운반하는 대형 트럭 진입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전시 기획 및 설치 과정이 고단하더라도 그 열매는 달다. 전시 관람자들이 남긴 정성스러운 후기 덕분에다. 관정 갤러리에 설치한 설문함을 가득 채운 관람 후기를 읽을 때면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관정 갤러리가 도서관을 찾은 이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전달되었음을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작은 전시회를 준비해 온 담당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관람 후기에 남겨진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발판 삼아, 관정 갤러리를 빛낼 다음 작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자 한다. 관정 갤러리에서 전시를 원하는 학내외 구성원은 담당 부서인 도서관홍보서비스에 전시 기획 의도, 전시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담아 이메일(libplan@snu.ac.kr)로 보내주면 된다.

## 나. 관정 갤러리를 빛낼 다음 작가를 기다리며

### 1) 서울대학교 종합화 50주년 기념 전시(가제)

2025년은 서울대학교 종합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1975년에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여 종합화를 실현한 서울대학교는 흩어진 단과대학을 단일 캠퍼스에 집중시킴으로써 조직을 유기적으로 재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 조직, 기능상의 변화가 수반되었으며(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2016, p.52),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조망하고자 중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발전재단·기록관과 함께 〈서울대학교 종합화 50주년 기념 전시(가제)〉를 기획하고 있다. 이 전시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비전,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변천사와 함께, 역사를 담은 사진, 과거의 캠퍼스 풍경과 당시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본 전시를 통해 서울대학교 종합화 이후 50여 년 동안 일구어낸 성과뿐만 아니라, 향후 50년 동안 이루어 나갈 계획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란다.

### 2) '2024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들' 전시(가제)

서울국제도서전은 독창성, 심미성, 우수성 등의 다양한 가치를 겸비하고 있는 한국 책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서, 한국 책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홍보하고 한국 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을 선정하는 공모를 진행한다(서울국제도서전, 2023). 총 4개의 공모 분야 중,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디자인 부문)' 공모에 선정된 책을 기반으로 작은 전시회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도서들을 실물 전시한다면 전시 관람객에게 책의 물성, 심미성 및 가독성 등을 직접 느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미동 (2024). 혼자 있는 시간: 자아와 고독. [리플릿].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서울국제도서전 (2024. 1. 24). [공모] 2024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공모 중 (24. 1. 31.). 출처: <https://sibf.or.kr/62/41>
- 서울대학교 (2015). 서울대 소식 - 보도자료 - 2015 예술주간 행사.  
출처: <https://www.snu.ac.kr/snunow/press?md=v&bbsidx=121652>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8). 제2회 작은 전시회 - 이지는 작가 편. 출처: <https://lib.snu.ac.kr/smallgallery2/>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9). 제7회 작은 전시회 - 이미경 작가 편. 출처: <https://lib.snu.ac.kr/smallgallery7/>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2). 제16회 작은 전시회 - 미동 편. 출처: <https://lib.snu.ac.kr/smallgallery16/>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3). 제19회 작은 전시회 - 미동 편. 출처: <https://lib.snu.ac.kr/smallgallery19/>
-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2016). 서울대학교 70년사: 1946-2016. 서울: 서울대학교.
- 요이한 (2019). Let's Elope!. [도록].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우나영 (2018). 한복 입은 서양동화. [리플릿].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이지선 (2017). The Tale of Paper Forest. [리플릿].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GalleryMEME (2017). 아트 오브젝트로서의 그림책. 출처: [http://www.gallerymeme.com/web/exbView.html?pType=02&result\\_no=24&page\\_no=2&pSeq=202&pScroll=0&pYear=&pSchType=01&pSchWord=%EA%B9%80%EC%A7%80%EB%AF%BC](http://www.gallerymeme.com/web/exbView.html?pType=02&result_no=24&page_no=2&pSeq=202&pScroll=0&pYear=&pSchType=01&pSchWord=%EA%B9%80%EC%A7%80%EB%AF%BC)